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2 년 7 월 30 일

CUOMO 주지사 몸에 구멍 뚫기로 인한 건강상 위험으로부터 10 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서명

Cuomo 주지사는 오늘 미성년자가 몸에 구멍을 뚫기 전에 부모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요구함으로써 10 대 청소년을 감염 및 혈액 전염 질환으로부터 좀더 잘 보호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상원과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뉴욕주의 젊은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몸에 뚫는 구멍은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뉴요커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우리의 10 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한 Robach 상원의원 및 Simanowitz 하원의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법안이 서명되기 전에는, 뉴욕주 법 하에서 몸에 구멍 뚫기에 대한 최소 연령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신은 18 세 미만의 청년의 경우 불법입니다. 몸에 구멍을 뚫는 시술의 약 20%가 감염을 초래하며, 또한 간염이 전염될 위험도 있습니다.

오늘 주지사에 의해 서명된 법령은 몸에 구멍을 뚫는 시술소로 하여금 10 대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고, 미성년 10 대의 경우 시술소에서 소유자 또는 시술 전문인의 참석하에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서명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몸에 뚫는 구멍이란 귀가 아닌 다른 신체 부분에 뚫는 구멍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90 일 후에 발효됩니다.

Joseph E. Robach 동 법안 후원자는 "몸에 뚫는 구멍은 흔히 감염 및 영구적인 흉터를 초래하므로, 그러한 결정에는 당연히 부모가 관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몸에 구멍을 뚫는 시술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교육시키며, 함께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동 법안의 공동 후원자인 Michael Simanowitz 하원의원은 "이 중요한 법안에 서명해주신 주지사의 신속한 조치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몸에 구멍을 뚫는 것은 적절히 시술되지 않으면 상당한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법은 부모로 하여금 아들이나 딸이 몸에 구멍을 뚫는 시술을 받으려 한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그리고 바람직하게는

알레르기, 피부염 또는 흉터 등의 합병증을 예방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31 개 주에서 부모의 허락 없이 미성년자의 몸에 구멍을 뚫는 시술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제 뉴욕주가 32 번째 주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